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하향 추진

4차 학폭예방·대책 계획 ‘우범소년’ 즉시 송치 조치

가해학생 특별 프로그램 운영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이 만 14세(중2) 미만에서 만 13세(중1) 미만으로 낮아진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선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중증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

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 14대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5대 영역은 ▲학교 공동체역량 제고 ▲공정하고 교육적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자 위탁이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일부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죄의식조

차 느끼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 촉법소년 검거건수는 2017년 205명, 2018년 246명, 2019년 274명 등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구리에선 한 초등학교생이 가족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했으나, 촉법소년으로 적용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또 중대 가해행위는 초범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초·중·고 학생을 전담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이나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등 신규 전문 인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가해 학생을 신

속히 분리조치하고,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조치 역시 내실화한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가해자는 소년부 재판

을 통해 소년원 전 단계인 소년분리심사원

에 송치돼 피해자와 분리된다. 이 밖에 오는 3월부터 초·중·고교와 가해 유형에 따라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상 교육기관에 보급하고, 각 학교에서 교과수업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교과연계 어울림’도 확대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대 예체능계 실기고사 정시모집 예체능계 실기고사가 진행된 15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체육교육과 정시모집생들이 실기고사를 치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하늘다람쥐 20일 치료 마치고 ‘무등산 품으로’

광주시 야생동물구조센터 개소후 1년 249마리 구조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328호,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사진)를 15일 무등산에 방생했다고 밝혔다.

방생된 하늘다람쥐는 지난해 12월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쥐 끈끈이에 걸려 다쳤고 구조센터는 20여일 간 치료하고 돌봤다.

지난해 1월 운영에 들어간 구조센터는 그동안 광주 곳곳에서 야생동물 62종



249마리를 구조했다. 조류가 214마리(86%)로 가장 많았으며, 포유류 31마리(13%), 파충류 4마리(1%) 등 순이었다. 여기에는 수리부엉이 새매, 솔부엉이, 삿 등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동물 12종 53마리가 포함됐다.

구조 유형별로는 건물·차량 충돌이 96건(39%)로 가장 많았다. 어미를 잃은 동물 구조 사례가 89건(36%), 인가 침입 26건(10%), 끈끈이 등 기타 사례 38건(15%)이었다.

배성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위급상황에서 구조한 249마리의 야생동물 중 85건은 치료와 재활과정을 거쳐 처음 구조됐던 지역을 우선으로 해 자연으로 돌려보냈다”며 “구조 및 치료 과정에서 폐사한 개체도 있으나 치료 후 방생을 목표로 열심히 구조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조선대 등록금 동결

2009년 이후 12년째 인하·동결

조선대학교가 2020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경기 침체와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조선대는 2009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후 2012년 2.1% 인하, 2013년 동결, 2014년 0.63% 인하 이래 올해까지 동결을 확정, 12년째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했다.

조선대는 12년간 등록금 동결 및 인하로 인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수익 증대와 그리고 정부재정지원사업(국비사업)을 수주해 나감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전남대병원 지방 첫 100례 돌파

전남대병원이 지방 최초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치료 시술인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I) 100례를 돌파했다.

15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순화기나과 김주환 교수팀은 지난해 11월 27일 79세의 남성 환자에게 TAVI를 성공적으로 시행,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100번째 시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지방 첫 TAVI 50례 달성 이후 1년여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대동맥의 혈액이 좌심실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이 이동하는 과정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채희종 기자 cha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해질 17:44
달뜨기 23:52
달지기 11:30

찌뿌린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2/5	보성	구름많음	-5/5
목포	구름많음	-2/3	순천	구름많음	-2/7
여수	구름많음	-1/6	영광	구름많음	-3/3
나주	구름많음	-4/6	진도	구름많음	-3/4
완도	구름많음	-2/6	전주	구름많음	-3/5
구례	구름많음	-5/7	군산	구름많음	-3/4
강진	구름많음	-2/6	남원	구름많음	-4/5
해남	구름많음	-4/6	흑산도	구름많음	-3/5
장성	구름많음	-4/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부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남부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부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남부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생활지수

감기	높음
뇌졸중	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11:12 23:49	06:04 18:39
여수	06:48 19:23	00:48 13:16

◇주간 날씨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	☀	☁	☀	☁	☁	☁
-1/7	-2/7	-1/7	2/8	-1/8	1/9	0/9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까지 주차허용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광주 9곳 전남 18곳 등 전국 548곳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곳과 시장 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곳이다. 주차 허용 전

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경찰청·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이 기간 광주에서 주차가 허용된 시장은 서방시장·남광주시장·1913시장·무등시장·대인시장·양동시장·말바우시장·송정5일시장·우산매일시장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북구 제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집

광주시 북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민 참여단 모집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23일까지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제5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30여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 속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정책제안 등을 통해 주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소통 시책이다.

참여대상은 북구에 거주하고 여성친화 정책에 관심 있는 주민이다.

참여신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북구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달리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증식성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